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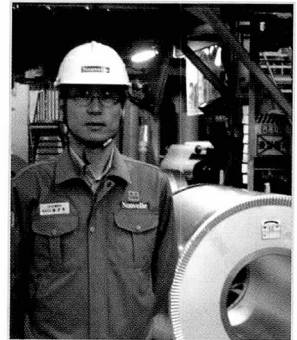
회사는 사원을 위해 사원은 회사를 위해 안전 365일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Nouvelle (주)누벨피엔에스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최고의 품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험요소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불안정한 행동이나 불안정한 상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S활동을 생활화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쾌적한 작업분위기 조성은 물론 사소한 위험으로부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으며, 지식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도전, 모험정신을 바탕으로 한 NSC(Nouvelle Safety Clean)활동을 전개하여 안전교육의 내실화, 안전제안제도의 정착, 지적확인의 생활화, 작업환경개선,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활동의 정착과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내의 아차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 스스로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으며 5행운동, 5분 안전미팅, 안전체조 개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은 곧 회사 발전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전사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누벨피엔에스
박순목 대표이사

■ 철강포장의 최고를 꿈꾸다, 누벨피엔에스

(주)누벨피엔에스(대표 박순목)는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인 자동차 강판 전문업체, 현대 하이스코의 협력사로 철강포장 및 설비운전, 포장자재 제작 전문업체로 2005년에 설립되었다. 1차 생산된 열연 코일에 냉간압연 공정을 거친 냉연강판과 코일 등 고부가가치 제품 포장이 주력사업이다. 2005년 설립된 이곳 현대하이스코 당진공장은 현대제철 B냉연 공장 전 포장라인을 맡아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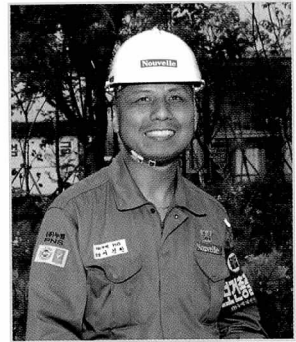
를 하고 있다. 특히 이곳의 패키징설비의 경우 ‘코일 오토패키징 시스템’을 구축하여 냉간압연, 산세강판, 용융아연, 도금 강판, 컬러강판 등 다양한 코일의 포장공정을 맡고 있다. (주)누벨피엔에스는 2005년 9월 영국 UKAS ISO 9001 : 2000 인증획득을 비롯하여 2005년 현대하이스코 당진공장 최우수 협력업체 선정, 한국일보주관 대한민국 전문기업 대상 수상 등 그 기술력과 품질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 안전은 거창한 구호나 완벽한 안전수칙 등으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안전의식에서 비롯된 자발적 행위,
 즉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반복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의 역할이란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서경한 소장

■ 환경개선과 위험요소의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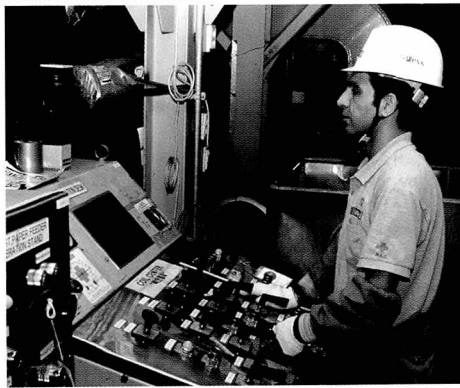
누벨피엔에스는 COIL 포장 전문 사업장으로
 “COIL AUTO PACKING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주요 공정으로 원자재입고 및 투입,
 자재 정리, 포장지 주름접기(WRAPPING), 철자재
 부착, 매뉴얼 조작(OP 및 EDGE, EYE, CENTER-
 STRAPPING M/C), 설비점검 등으로 나뉘어진다.
 각 공정에서는 대부분 기계설비를 이용한 자동시스
 템 구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보조 작업에서 근
 로자들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무리한 동작, 불
 안전 행동과 관련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위험요인
 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지난해부터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매월 전 관리자를 포
 함한 근로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안제도
 는 안전과 환경, 원가절감, 사원복지를 포함한 전반
 적인 분야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안위원회는
 3차에 걸친 타당성 검토와 실현가능한 제안에 대해
 선별한 후, 선별된 제안을 반영하고자 분기, 반기,
 연간 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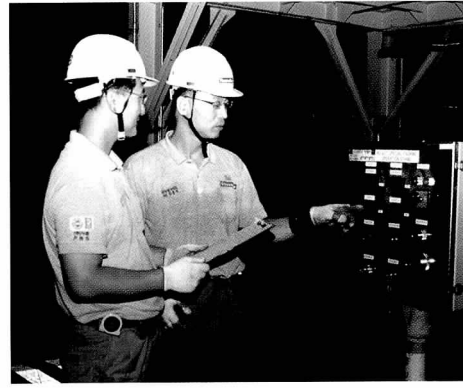
STRAPPING M/C공정의 위험요인 개선, 운반구
 개선제작, PAPER-FEEDER 상단의 중량물(포장
 지)적치개선, 전기배선 하단이설 또는 덮개처리 등
 상반기에만 20여건의 제안들이 선정되어 개선었다.



▲ 생산팀 최동열



▲ 생산팀 반장 김영훈



▲ 관리부 김장순, 생산팀 남상기




■ 회사는 사원을 위해, 사원은 회사를 위해

누벨피엔에스에서는 근로자와 관리자들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Funday, Sportsday, 짬질방테이등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2일, 7일, 12일로 나누어 각 팀별 단합대회를 갖는데, 이곳에 꼭 관리자가 참석하여 근로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의 고민이나 고충사항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3개조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근무조는 “온누리”, “불새”, “한울”이라는 동호회활동을 각각 진행하고 있는데 볼링, 등산, 피구 등의 생활체육으로 팀워크 강화와 체력증진에 회사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가장 좋은 회사란, 기업의 이윤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닐까?

동절기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근로

자들을 위해 따뜻한 오뎅국과 영지물을 나누어 주는 등 작지만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기업 누벨피엔에스, 모든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이 무더운 여름을 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임재근 기자)

